

One pick

추천작



‘공부왕’ 공개 1년만에 111만명 돌파 딸 위해 ‘닥공’ 홍진경 진솔함의 힘

진지하면서 웃기고, 웃기면서도 진지하다. 모델 출신 방송인 홍진경이 고교시절 연예활동을 시작한 탓에 학업을 제대로 잇지 못한 아쉬움을 풀기 위해 만든 ‘열공’ 콘텐츠가 이렇게 터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공부왕전천재 홍진경’(공부왕)이 지난해 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처음 공개된 후 1년이 지난 7일 현재 구독자수 111만 명을 넘어섰다. 단순히 연예인이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왜 이리 인기가 많을까. 홍진경은 자신의 거울과도 같은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인 딸 라엘을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공부한다. 모른다는 사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진솔한 모습이 그를 달리 보게 한다는 시각을 이끌어낸다.

‘공부왕’ 속 홍진경의 솔직함과 진지함이 통해서일까. 동료 연예인은 물론 일명 ‘일타강사’와 정치인들도 출연을 마다치 않는다. 최근 정승재, 이다지 등 스타강사를 비롯해 전현무, 오상진 등 연예계 대표 ‘브레인’으로 통하는 스타들이 잇따라 출연해 한 몫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일일 선생님이 되며 홍진경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입차합수를 설명했다. 대입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차지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그에게 밀려 아깝게 1등을 놓쳤다는 나경원 전 국회의원 의원, 손준은 메가스터디 대표 등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홍진경을 가르쳐 화제를 모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KBS2 ‘크레이지 러브’로 첫 로코 도전 정수정

“콧물 범벅 첫 키스신, 얼마나 웃기던지...”

100점짜리 호흠 김재욱 오빠
어릴적 내 결혼 이상형이었죠
치맥하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
힘든 시기 웃음 드리고 싶어요

정수정(28)이 확 달라졌다. 2009년 걸그룹 에프엑스의 멤버로 데뷔한 이후 13년째 따라붙은 ‘얼음공주’ 수식어를 던져버릴 기세다. 변신의 무대는 7일 첫 방송한 KBS 2TV 새 월화드라마 ‘크레이지 러브’이다. 평소의 차갑고 도도한 이미지 대신 사랑스러운 매력을 담백 드러내겠다는 각오다.

모두 “인생 첫 로맨틱코미디”를 위해 준비한 변화다. 정수정은 ‘크레이지 러브’를 통해 2010년 MBC ‘볼수록 애교만 점’으로 연기를 시작한 이후 유난히 연이 닿지 않았던 로맨스 코미디 장르에 처음 도전한다. 그는 이날 오후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이번에야말로 숨겨둔 코믹함을 발산해보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 “콧물 뽀뽀, 들어보셨나요?”

드라마는 성격이 포악한 일타강사 노고진 역의 김재욱과 그의 비서 이신아를 연기하는 정수정의 티격태격 로맨스를 그린다. 정수정은 상사의 압박에 시달리다 암 진단과 시한부 선고를 받고, 때마침 뽀뽀나 사고를 당해 기억상실증에 걸린 김재욱에게 각종 방법으로 복수를 해 나간다.

“로맨틱 코미디에 호기심이 많았던 터라 망설임 필요가 없었어요. 말 그대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정수정이 7일 오후 열린 KBS 2TV 월화드라마 ‘크레이지 러브’ 온라인 제작 발표회 무대에서 밝게 미소 짓고 있다. 사진제공 | KBS

로 ‘그냥 바로’ 선택했죠. 제가 연기하는 이신아 캐릭터도 마음에 들었어요. 일에 대한 열정이 크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따뜻해요.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면이 실제와 비슷하고요. 다만, 저라면 극중 노고진 같은 상사 아래

에서 1년은 도저히 못 버틸 거예요. 하하하!”

코미디 요소가 한껏 강조된 덕분에 웃긴 에피소드도 즐비하다. 그는 지난해 겨울 촬영한 첫 키스신에 “콧물 뽀뽀”라는 코믹한 별명을 붙이며 웃음을 뽐

뽀했다.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 남산에서 김재욱 오빠와 뽀뽀를 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저와 오빠 둘 다 비염이 있어서 평소에도 콧물이 많이 나는데 그날은 어땠겠어요. 뽀뽀할 때마다 오빠의 인종에 제 콧물이 자꾸만 묻어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죄송해요’하며 속 닦았지만 얼마나 웃기던지. ‘콧물 뽀뽀’,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으실 걸요?”

● “이상형 김재욱과 호흠 100점”

첫 로맨스 상대인 김재욱과는 “100점짜리 호흠”을 자랑한다. 이번 드라마로 처음 만났을 때는 “남다른 포스”를 느꼈지만, “이가 전부 다 보일 만큼 호탕한 웃음”에 동화된 지금은 “애드립도 편하게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17살 무렵에 한 인터뷰에서 MBC ‘우리 결혼 했어요’에 나간다면 상대가 누구였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받았어요. 당시 김재욱 오빠가 멋져보여서 별생각 없이 답했는데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10년이 훌쩍 지나 상대역으로 만나니 감회가 새로워요.”

김재욱과 진작 시청률 내기도 해둔 상태다. “두 자릿수 돌파”를 바라는 김재욱과 달리 “1994년생이니 9.4%까지만 욕심내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제가 주연했지만 정말 웃긴 드라마예요. 웃고 싶을 때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답답한 요즘, 시원하게 ‘치맥’하며 보시면 통쾌한 매력에 퐁당 빠지게 될 거예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대작 ‘더 배트맨’ 흥행부진, 왜?

‘더 배트맨’의 흥행 화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긴 상영시간과 어두운 스토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일 개봉한 ‘더 배트맨’이 첫 주 누적 50만 관객을 동원했다. 올해 개봉작 중 최고 오프닝 기록이지만, 최대 기대작이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더 배트맨’은 사전 예매량 10만 장을 넘기며 개봉 첫날 19만 명을 동원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하지만 이틀날 3만 명대로



더 배트맨

평일 관객수가 급감했다. 이후 주말이었던 5일과 6일 각각 10만 명과 8만 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첫날 19만명 후 ↓…주말 10만·8만명
3시간 상영시간·어두운 스토리 걸림돌

흥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3시간에 가까운 긴 상영시간(176분)이 꼽힌다. “30분만 줄였어도 더 좋았을 것 같다” “너무 길다” “초반은 잘 보다가 졸았다” 등 상영시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실관람 평가가 이를 말해준다.

제작비 2억 달러(약 2451억 원)를 쏟아 부은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이지만 대중성 보다는 작가주의적 색채를 더 강조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트맨’ 시리즈에 대한 관객의 호불호

도 엇갈린다. 1990년 ‘배트맨’ 이후 16번째 실사영화인 ‘더 배트맨’까지 국내 개봉작 가운데 2012년 ‘다크 나이트 라이즈’가 642만여 관객을 불러 모은 것이 최고 흥행 수치로 남아 있다.

할리우드의 슈퍼 히어로물 시장을 양분해온 DC스튜디오의 작품이지만, 2019년 ‘엔드게임’을 포함해 세 편의 1000만 관객 흥행작을 보유한 ‘어벤저스’ 시리즈 등 마블스튜디오의 상황과도 비견된다. ‘더 배트맨’은 기존 DCEU(DC 확장 유니버스)에도 포함되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이야기로 비치지만, 관객에게는 새롭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만족의 깊이가 다른 드라이버

비거리에 종지부를 찍다!! 퓨처리스트(futurist) 드라이버

480CC의 대형 헤드를 장착하여 넓어진 스위트 에어리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거리가 한계에 다다를 때, 퓨처리스트의 능력은 시작된다. 남들은 세컨샷으로 샷이언을 잡을 때, 본인은 롱이언이나 우드를잡았던 슬픈 기억이 있진 않은가? 해가 바뀔수록 비거리가 줄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가? 골퍼라면 누구나 볼을 더 멀리, 더 정확히 보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18홀 동안 스코어에 영향을 미치는 클럽은 드라이버샷. 티샷이 더 멀리 더 정확히 안착해야 세컨샷으로 선택하는 클럽도 쉬운 클럽 사용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 멀리, 더 정확히 일관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퓨처리스트 드라이버가 국내 런칭되어 이제 이러한 고민을 한방에 날려 버릴것이다.

드라이버의 생명은 비거리와 방향성 비거리를 20m 향상시켜주는 퓨처리스트 고반발 드라이버는 최고의 비거리를 위해 과학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이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페이스를 최대한 얇게 제작한다. 얇아진 페이스 두께만큼 비거리는 향상된다 하겠다. 얇게 제작하면 깨지는 위험이 있으나 퓨처리스트의 집약된 기술력으로 깨지지 않게 만들어 내는 기술이 뛰어나다 하겠다. 둘째, 샤프트는 토레이 원단으로 CROSS CARBON 조직의 초 고탄성 설계로, 임팩트존에서 최대의 반

발탄성을 만들어 비거리가 늘어나고 방향성을 정확하게 유지시켜주는 SYSTEM FIT 샤프트로 개발했다.

크로스(교차방식) 직조 샤프트 퓨처리스트의 샤프트는 일본 토레이사 원단을 크로스 직조로 제작했다. 한 방향으로 직조되는 일반샤프트와 달리 왼쪽 오른쪽 양방향 크로스 직조로 제작되던 공정도 까다롭고 제조 비용도 몇 배 올라간다. 반발력이 높은 헤드의 임팩트를 고스란히 샤프트의 뒤를림 없이 정확한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수축과 복원이 뛰어난 완벽한 퍼포먼스자랑.

비기너나 아마추어를 편하게 하는 재주를 타고난 퓨처리스트 드라이버 골퍼들이 일본에서 수입된 퓨처리스트 드라이버의 장점은 이렇다. 먼저 비공인으로 개발돼 반발계수가 0.93으로 제작했지만 깨짐 현상은 일반드라이버의 반발계수와 같은 정도로 깨짐현상이 적다. 헤드는 정밀 주조 바디와 헤드페이스를 최대로 얇게 설계한 초박형 티타늄 신소재를 결합해 임팩트 시 볼 스피드를 최대치로 상승시켜 최고의 비거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480cc의 대형 헤드를 장착했지만 전혀 부담스럽

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어드레스를 선사해, 샷의 안정감을 준다.

대용량 헤드가 선사하는 압도적인 비거리 480CC의 대형 헤드지만 역학 기술로 설계된 외관상 커 보이지 않는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으며, 스윙 시 일반 헤드 크기의 드라이버와 유사한 공기 저항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형 헤드 크기 장작으로 이질감이 최소화 한다. 헤드 부분의 깊이감에 집중한 설계와 강력한 자아 코어복원력으로 극대화된 반발력. 또한 어드레스 시 헤드의 토우와 힐의 최적화된 분배로 심리적인 안정감은 물론 정확하고 먼 비거리를 완성하며 압도적인 관용성을 자랑한다.

초경량 컴페이스 제작 페이스면을 헤드 바디까지 충분히 덮어 탄성을 증가시키는 물론 볼에 떨림이 없는 방향성을 잡았다. 초경량 MAX HIGH COR 특수소재로 헤드의 무게는 줄이고 탄성강도는 더욱 높였다. 이는 백스핀량 감소와 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 에너지가 흡수되지 않고 페이스 중앙에 집중된다 하겠다.

VVIP를 위한 60% 행사가 판매 최고급 골드도금

으로 화려하면서도 기품있는 디자인 설계로 퓨처리스트를 사용하는 골퍼들에게 자부심과 가치를 선사하기 위해 가장 완성도 높은 금장으로 마감한 VVIP를 위한 드라이버입니다. 한치의 오차와 공기 저항의 손실 없이 완벽한 스윙궤적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고가의 퓨처리스트 드라이버를 50점 한정으로 270만원소비자가 대비 60프로할인된 행사가 89만원에 판매단행한다.

퓨처리스트 드라이버 SPEC					
스펙(SPEC)	R	R	SR	SR	L
로프트 각	10.5	9.5	10.5	9.5	11.5
스윙밸런스	C9	D1	D0	D2	C2
헤이트	272	274	278	280	261
토크	4.7	4.7	4.2	4.2	5.2
CPM	215	215	225	225	205
총길이	45.75	45.75	45.75	45.75	44.25
헤드체적	480	480	480	480	480



퓨처리스트 드라이버: 소비자가 270만원 89만원

홈페이지 www.OPTOP.co.kr
문의전화 1544-2749

